

지역경제

1996. 12.

제 5 권 제 12 호

卷頭言

對開途國 經濟外交의 방향과 韓·캄보디아 外交關係 樹立 朴慶泰 1

動向

中國 動向	中國室 6
印支3國 및 미얀마 動向	아시아室 12
東南亞 動向	아시아室 17
西南亞 動向	아시아室 21
舊蘇聯 動向	歐洲室 24
中·東歐 動向	歐洲室 29
中南美 動向	美洲室 35

特輯 多변화하는 東南亞 經濟와 우리의 대응

ASEAN의 경쟁력	柳在元 40
한국기업의 對ASEAN 진출전략	李成樑 47
포스트 수하르토 인도네시아의 政治發展 전망	梁承允 56
泰國의 국가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추진과정	李翰雨 62
말레이시아의 産業化政策과 성과	柳錫春 68
베트남 經濟改革의 성과와 한계점	具成烈 74
미얀마의 資源開發과 少數民族	朴章植 78

地域情報

미얀마 金融改革의 추진 현황과 전망 鄭在完 84

資料

베트남의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을 통한 프로젝트 추진계획(1996~2000) 申東和 93

日誌

中國·臺灣·홍콩·蒙古	中國室 103
印支3國 및 미얀마	아시아室 119
東南亞	아시아室 124
西南亞	아시아室 136
오세아니아	아시아室 146
舊蘇聯	歐洲室 150
中·東歐	歐洲室 161
中南美	美洲室 175

統計

주요 교역 통계	202
우리나라의 ASEAN 및 인도차이나 국가에 대한 海外投資 현황	207

索引

1996년 『지역경제』 색인 209

말레이시아의 産業化政策과 성과

- 1. 머리말
- 2. 産業化政策의 변화
- 3. 産業化政策의 성과
- 4. 맺음말



柳 錫 春
延世大學校 社會學科 教授

1. 머리말

말레이시아의 산업화과정은 1971년부터 1990년까지 20년간 추진된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NEP)'의 성과가 대변하고 있다. 이 정책을 통하여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동남아시아의 신흥공업국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선두주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신경제정책은 1969년 선거 직후 말레이인의 中國人에 대한 경제적 좌절감이 유혈 종족폭동으로 비화되자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가 채택한 경제발전정책으로서, 경제성장의 주된 수혜집단을 말레이인으로 선택함으로써 中國人과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정책이었다.(Faaland, Parkinson, and Saniman, 1990: 12-14; 고우성, 1995: 172)

신경제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말레이시아 경제는 불평등현상을 상당한 정도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뿌리깊은 종족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신경제정책이 마무리된 1990년대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말레이시아의 지속적인 골치거리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을 단위로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발전정책(National Development Policy: NDP)'에서 신경제정책의 기본노선을 계승하여 産業化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정책은 기본적으로 신경제정책을 계승하고 있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는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2. 産業化政策의 변화

말레이시아 산업화의 첫번째 단계는 1957년 독립부터 1970년까지의 기간으로 볼 수 있

다. 이 기간의 산업화과정에서는 시장기능을 통한 성장추구를 주된 전략으로 삼았다.(Jomo, 1990: 107-110) 그리고 經濟發展의 최우선 목표는 낙후된 말레이시아 농촌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일에 두어졌다. 농촌을 근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건강, 주거, 교육 등의 농민환경을 개선하였고, 교통과 통신 및 전기 등의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産業部門에서는 특히 주식과 고무의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또한 수입을 대체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제조업 특히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미약하나마 시작된 것도 이 시기이다.(Samsudin Hitam, 1993: 174-175)

그러나 이 시기의 산업화정책은 종족간에 나타나고 있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시장기능에 의존한 수입대체 산업화정책은 貧益貧 富益富 현상을 가속화시켜 1970년을 전후하여 말레이시아는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현상을 겪게 되었다.(Teh Hoe Yoke & Goh Kim Leng, 1992: 69) 또한 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70% 이상은 부미푸트라, 즉 토착 말레이 종족이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들 부미푸트라는 생산성이 가장 낮은 傳統的 農業部門에 집중되어 있었다.(Fong Chan Onn, 1987: 102) 한편 기업부문의 자본소유에 있어서도 종족간의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전체 기업자본의 2.4%만이 부미푸트라의 소유인 반면, 中國人은 30% 이상, 그리고 外國人은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Fong Chan Onn, 1987: 112)

말레이시아 사회에 존재했던 종족간의 이러한 經濟的 條件의 격차는 당연히 정치적인 불안을 야기하였고, 그 가시적인 결과가 1969년 5월 3일 발생한 유혈 종족폭동이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1971년부터 1990년까지 20년 동안 4번의 5개년계획(2차부터 5차까지)으로 이루어진 신경제정책을 새로운 産業化의 代案으로 출범시키게 되었다.(Jomo, 1990: 111-112) 산업화의 두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신경제정책의 추진기간은 가난을 일소하고 국가의 통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를 재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그리하여 신경제정책이 마무리되는 1990년까지 말레이 반도는 빈곤율이 49.3% 에서 16.7% 로 감소되고, 기업의 자본소유비율에 있어서 부미푸트라의 지분이 2.4%에서 3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外國人의 지분은 60%에서 30%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이외에도 신경제정책은 僱傭構造에서 종족간의 인구비율을 반영시킨다는 목표도 채택하였다.(The First Outline Perspective Plan: OPP1)

이 정책은 연평균 8%의 경제성장을 전제로 하여 계획되었다. 그레아만 성장의 결과를 분배함에 있어 특정 종족이 절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Samsudin Hitam, 1993: 175-6) 또한 이러한 목표를 성취함에 있어 民間部門에 의한 시장기능을 존중하되, 公企業의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하였다. 이 정책은 또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말레이시아 경제의 구조를 輸出主導 産業化를 통해 다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Jomo 1990: 118-123) 4번의 5개년계획에 따라 신경제정책이 추진된 결과 말레이시

아의 經濟와 社會는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을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발전정책'은 기본적으로 신경제정책을 계승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신경제정책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빈곤을 퇴치하는 전략이 다소 수정되어 相對貧困보다는 絶對貧困을 우선적으로 퇴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였고, 둘째, 부미푸트라에 의한 상업과 산업의 공동체 형성을 이룩한다는 목표가 추가되었으며, 셋째, 경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民間部門의 역할을 제고하기로 하였고, 넷째,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룩하기 위한 노력으로 人的資源의 개발 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의 함양에 치중하기로 한 점이다.(The Second Outline Perspective Plan: OPP2)

이 새로운 정책은 분배구조를 재편하는 문제에 구체적인 목표를 숫자화하지 않았고, 또한 이를 성취하는 시간적 제약도 두지 않았다. 이러한 전략의 변화는 빈곤의 퇴치나 사회의 재편이 政府의 支援에 의한 성장과 民間部門의 팽창에 의해 충분히 성취될 수 있다는 정부의 자신감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변화의 배경에는 무한경쟁시대인 90년대의 국제환경 속에서 말레이시아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탈규제 및 자유화를 통해 민간부분의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여야만 한다는 정책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amsudin Hitam, 1993: 176)

3. 産業化政策의 성과

<表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신경제정책이 추진된 지난 1971년부터 1990년까지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별 국내총생산(GDP)의 구성비 변화를 살펴 보면 농업 및 임업은 29% 에서 19%로 감소하였고, 제조업은 14% 에서 27% 로 상승하였다. 산업별 성장률에서도 제조업 부문이 연평균 10.3% 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급속한 재편은 고용인구의 산업별 분포에서 신경제정책의 목표를 상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1990년 농업부문 고용인구 구성비의 목표는 35% 였으나 실제로는 28%, 제조업부문 구성비의 목표는 17% 였으나 실제로는 20% 로 각각 목표를 초과한 성과를 보여 준 것이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경제는 신경제정책 이후 농업, 산업, 서비스업간의 균형을 상당한 정도 이룩하게 되었다.

신경제정책은 또한 말레이시아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 주었다. <表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경제정책을 시행한 결과 중족간에 존재하던 극심한 소득불균형 현상은 상당한 정도 완화되었다. 1976년 중국인 가구는 부미푸트라 가구의 약 2.3배의 소득을 올렸으나, 1990년에는 이 격차가 약 1.7배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빈곤의 문제도 많이 개선되었다. <表 3>에 정리된 바와 같이 1971년 49.3%에 이

<表 1> 신경제정책의 부문별 목표와 성과

(단위 : %)

	1970	1990 (목표)	1990 (성과)
산업별 GDP 구성비율			
농업·임업	29.0	19.7	18.7
광업	13.7	2.6	9.7
제조업	13.9	26.2	27.0
건설업	3.8	4.7	3.5
서비스업	36.2	48.3	42.3
관세	3.4	-1.5	-1.2
평균성장률			
국내총생산(GDP)		8.0	6.7
농업·임업		5.4	4.4
광업		3.8	4.9
제조업		12.2	10.3
건설업		8.3	6.4
서비스업		8.5	7.6
산업별 고용비율			
농업·임업	53.5	35.1	27.8
광업	2.6	1.5	0.6
제조업	8.7	16.8	19.5
건설업	2.7	3.6	6.4
서비스업	32.5	43.0	45.7

資料 : Samsudin Hitam, 1993: 184.

<表 2> 중족별 월평균 가구소득의 변화

(단위 : 달러, %)

	1976	1990
전체평균	505(1.0)	1,167(1.0)
부미푸트라 평균	339(0.7)	928(0.8)
中國人 평균	796(1.6)	1,631(1.4)
印度人 평균	537(1.1)	1,201(1.0)
기타 평균	996(2.0)	3,292(2.8)

註 : ()안은 평균소득에 대한 비율임.

資料 : Samsudin Hitam, 1993: 185.

르던 말레이시아 전체의 빈곤율이 1990년에는 17.1%로 감소하였다. 또한 이러한 빈곤의 퇴치를 地域 및 種族別로 세분하여 살펴보아도 모든 집단에서 뚜렷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빈곤의 문제가 아직도 농촌에서 그리고 부미푸트라 집단에서 완전히 일소된 상황은 아

니지만 20년 전과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表 3〉 지역별, 종족별 빈곤율의 변화

	1970		1990		
	빈곤율	비율	빈곤율	비율	
전체 빈곤율	49.3	17.1	부미푸트라	65.0	23.8
농촌	58.7	21.8	中國人	26.0	5.5
도시	21.3	7.5	印度人	39.0	8.0
			기타	44.8	12.9

資料 : Samsudin Hitam, 1993: 185.

또한 기업자본의 소유도 신경제정책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역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表 4〉에 정리된 바와 같이, 1970년 2.4%이던 부미푸트라 지역의 몫이 1990년 20.3%로 증가하였고, 기타 말레이시아인 즉 中國人の 몫은 32%에서 46%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外國人の 몫은 63.3%에서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25.1%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축소된 外國人の 몫을 부미푸트라와 中國인이 나누어 가졌으며, 그중 특히 부미푸트라 지역의 몫이 급격히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表 4〉 종족별 기업자본 소유의 변화

	1970	1990	1990
	빈곤율	목표	성과
부미푸트라	2.4	30.3	20.3
기타 말레이시아인	32.3	40.0	46.2
外國人	63.3	30.0	25.1
명목적인 기업	2.0	-	8.4

資料 : Samsudin Hitam, 1993: 185.

4. 맺음말

전체적으로 보아 신경제정책이 시행된 1971년부터 1990년까지 20년 동안 말레이시아 경제는 연평균 6.7%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를 다시 10년 단위로 분리하면 70년대에는 7.5%, 80년대에는 5.9%의 평균성장률을 각각 보여준다. 70년대의 相對的 高成長에 기여한 요인으로는 생산부문에서 公企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사실과 天然資源 특히 石油의 생산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79년 제2차 오일파동 이후에는 외부의 경제환경이 逆으로 바뀌고, 8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한 상품의 상대가격 하락과 공공부문 지출의 감소에 영향받아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목표였던 연평균 8%의 성장률에는 비록 못미쳤다 하더라도 70년대와 80년대에 있었던 국제환경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신경제정책은 일단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성장은 특히 성장을 주도한 製造業의 발전에 힘입어 구조적인 再編과 安定化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경제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말레이시아는 연평균 6.7%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등 동남아시아 신흥공업국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선두주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신경제정책을 통하여 말레이시아는 빈곤을 퇴치하고 종족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국가의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신경제정책 기간에 추진된 네 차례의 5개년계획은 말레이시아의 경제구조를 고도화시키고 빈곤 및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成長과 分配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新經濟政策을 통해 잡은 것이다.

〈參考文獻〉

고우성, 「동남아의 외자정책: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비교」, 동남아지역연구회, 『동남아의 정치경제』, 서울: 21세기한국연구재단, 1995.

Department of Statistics, *Yearbook of Statistics*, KL., Malaysia, 1991.

Faaland, Just, J. R. Parkinson, & Rais Saniman., *Growth and Ethnic Inequality: Malaysia's New Economic Policy*, KL: Dewan Bahasa Dan Pustaka, 1990.

Fong Chan Onn, *The Malaysian Economic Challenge in the 1990s: Transformation for Growth*, Singapore: Longman, 1989.

Jomo, K.S.,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in the Malaysian Economy*, London: Macmillan, 1990.

Jomo, K.S., "Malaysian Labor Market Adjustments in a Period of Structural Change" in M. Muqtada & A. Hildeman (eds.), *Labor Markets and Human Resource Planning in Asia: Perspectives and Evidence*, Geneva: ILO, 1993.

Samsudin Hitam, "Development Planning in Malaysia" in Somosak Tambunlertchai & S.P. Gupta (eds.), *Development Planning in Asia*. KL: Asian and Pacific Development Centre, 1993.

Teh Hoe Yoke & Goh Kim Leng (eds.), *Malaysia's Economic Vision*, Selangor Darul Ehsan: Pelanduk Publication, 1992.

The First Outline Perspective.

The Second Outline Perspective.